

##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박 철 희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선임연구위원

jacob10@cni.re.kr

이 연구는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방안으로 충남의 생활문화 활동 여건과 사업추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CONTENTS

1. 생활문화 개념과 정책동향
2. 충남 생활문화 활동 여건과 사업 추진 실태
3. 충남 생활문화 정책 관련 도민의견
4. 정책 제언

### 요약

- ◀ 생활문화란 “지역 주민이 생활 속에서 자발적 또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 활동”으로,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행복 등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 ◀ 충남도의 생활문화 활동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조사결과, 약 715개의 시설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도민의식 조사를 통해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삶의 즐거움, 자신감 형성과 향상, 일상생활의 활력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련정책 필요성을 강조함
- ◀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정책목표로 삼고, 현장밀착형 생활문화 활동 공간 및 매개인력 지원, 정보성과의 공유와 제도 기반 구축, 광역과 기초, 민관 협력관계 구축 등을 전략으로 제안함
- ◀ 이에 첫째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조성과 매개인력 지원, 둘째 생활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정보 공유 지원, 셋째 충남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 구축, 넷째 제도적 기반 구축(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조례’ 제정), 다섯째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 및 동아리 육성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방향으로 제안함



# 01

## 생활문화 개념과 정책동향

### 1. 생활문화란?

- 생활문화란 “지역 주민이 생활 속에서 자발적 또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장르·영역, 활동유형, 주체·대상의 관점에 따라 변화됨
  -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서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됨

[표 1] 생활문화 개념의 변화단계

관점	시기	내용 및 특성
행위자 관점	1990년대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예술/창작자가 아닌 일반시민/아마추어의 문화활동(문화향유, 문화학교, 문화교육 등)</li> <li>• 비전문가의 창작활동</li> </ul>
장르적 관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적·심미적 개념에서 확장된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활동</li> <li>– 전통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 정서적 취미활동 등</li> </ul>
공간/시간적 관점	2000년대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간과 분리된 여가활동으로서가 아닌 일상 속, 생활 속의 문화활동</li> <li>– 전문문화공간, 생활문화공간 등 장소 여부는 기준이 아님.</li> </ul>
활동의 방식 관점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활동의 방식에서 주체적 활동이 기준</li> <li>– 창작활동 여부가 아닌 문화활동 기획/과정의 주체적 참여가 기준</li> <li>– 수동적인 문화관람 등은 생활문화 활동에서 원칙적으로 제외</li> </ul>

자료: 정광렬, 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8의 내용을 재정리.

### 2. 생활문화 정책동향과 유형

- 정부의 생활문화 정책 흐름은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문화비전 2030)을 제시하며 생활문화 지원을 공간 중심에서 강사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문화동아리 10만개 양성(발표, 교류, 공간, 강사활동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정부의 생활문화정책 유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추진됨

- ① 생활문화시설의 조성·확산 : 지역에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예: 생활문화센터, 독서동아리공간 나눔지원사업, 문화파출소 사업 등이 포함됨)
- ② 생활문화프로그램 및 동호회(동아리·생활문화공동체) 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등의 사기진작, 교류 및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축제 및 교류활동, 문화가 있는 날 등이 있으며, 생활문화공동체, 동아리 지원 및 축제 등이 포함됨
- ③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전국의 생활문화시설에 배치되어 있음
- ④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이와 연계된 생활문화정보시스템 구축 : 맞춤형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상태임



## 02

충남 생활문화 활동 여건과 사업  
추진 실태

## 1. 생활문화 활동 공간

- 충남의 생활문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조사결과, 약 715개의 시설이 조사됨

[표 2] 충남 생활문화 활동가능 문화시설 및 추진기관 현황(2016)

(단위 : 개)

구분	총계	복합문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문화원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sup>4)</sup>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영상문화시설		평생학습센터 <sup>7)</sup>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	공연장 <sup>2)</sup>	박물관	전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sup>3)</sup>							영상미디어센터 <sup>5)</sup>	작은영화관 <sup>6)</sup>		
충남	715	18	27	46	9	58	282	16	4	5(3)	7	10	11	14	5	4	199
천안시	117	3	7	7	2	10	50	3	1	-	-	1	2	3	-	-	28
공주시	47	1	1	9	1	4	10	1	-	-	1	1	-	1	-	1	16
보령시	55	1	1	2	1	5	24	1	-	1	1	1	1	-	-	-	16
아산시	114	1	4	6	1	6	73	1	1	1(1)	-	-	1	1	-	1	17
서산시	52	1	1	-	-	5	28	1	-	1	-	1	1	2	-	-	11
논산시	45	1	1	1	1	3	19	1	-	-	-	-	1	1	-	1	15
계룡시	11	1	1	-	-	2	2	-	-	-	1	-	-	-	-	-	4
당진시	59	1	1	4	1	4	28	1	1	(1)	1	2	-	1	-	-	14
금산군	37	1	1	4	-	5	9	1	-	1	2	1	1	-	1	-	10
부여군	34	1	2	4	-	2	6	1	-	1	-	1	-	1	-	-	15
서천군	31	1	2	-	-	2	7	1	-	-	1	1	1	1	1	-	13
청양군	24	1	1	-	-	2	8	1	-	-	-	-	-	-	1	-	10
홍성군	28	1	1	3	1	2	4	1	1	-	-	1	1	1	-	-	11
예산군	36	2	2	4	1	3	8	1	-	-	-	-	1	1	1	-	12
태안군	25	1	1	2	-	3	6	1	-	(1)	-	-	1	1	1	1	7

자료 : 1)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http://www.kopis.or.kr>)3)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http://www.smalllibrary.org/>)4) 생활문화진흥원(<http://www.nccl.or.kr>) / (n)은 개관 예정 개수5)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www.krmedia.org](http://www.krmedia.org))6) 문화체육관광부 평생정책([www.mcst.go.kr](http://www.mcst.go.kr))7)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nile.or.kr>)

- 양적으로는 천안이 11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 114개소, 당진시 59개소, 보령시 55개소, 서산시 52개소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생활문화 활동과 관련이 높은 시설은 작은 도서관이 282개소, 문화원 16개소, 문화재단 4개소, 생활문화센터 8개소, 문화의집 7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0개소, 청소년수련관 11개소, 영상미디어센터 14개소, 작은영화관 5개소, 평생학습센터 4개소, 주민자치센터 199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어 양적으로는 작은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 사업추진실태

- 생활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거나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대표 시설유형은 총9개로 ①문화원, ②주민자치센터, ③생활문화센터, ④(청소년)문화의집, ⑤미술관, ⑥(공공, 작은)도서관, ⑦평생학습센터, ⑧청소년 수련관, ⑨문화재단 등으로 나타남
  - 문예회관·공연장은 전문공연시설로 공연·전시 문화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며, 최근 일부 생활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시시설로는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 박물관은 박물관 보존·전시 위주여서 생활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미술관의 경우는 미술 관람객 확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미술 교실, 문화학교, 음악회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의 경우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과 대부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준은 전국대비 낮은 상태임.
  - 문화원의 경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정 시설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공주, 서산, 부여, 홍성, 예산 문화원은 생활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전통과 역사, 대상별로는 노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총 5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생활문화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한편,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7개소의 문화의집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의 노후화 개선,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으나, 서비스 변화와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동·읍 소재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자치센터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음
  - 충남은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 간의 정보교류 연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 생활문화시설별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추진 실태

구분		시설현황 (개소)	생활문화 정책 및 사업추진현황
총계		715	
복합 문화	문예회관	18	· 생활문화 활동에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부대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활발하지 못함
공연 시설	공연장	27	·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근 부분적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소공연장 규모가 대부분 100㎡ 이상으로 생활문화 활동에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전시 시설	박물관	46	· 대부분의 시설이 박물관 보존·전시 위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미술관(전시관)	9	· 찾아가는 미술교실, 문화학교, 음악회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제공
도서관	공공도서관	58	· 평생학습센터와 연계된 생활문화프로그램 제공
	작은도서관	282	·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문화원		16	· 주제별, 대상별로 다양한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단		4	·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생활문화센터		5	·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문화의집		7	·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10	·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관		11	·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영상 문화 시설	영상미디어센터	14	· 조성 초기(서천)로서 생활문화 프로그램 도입 시도
	작은영화관	5	· 영화관람 중심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평생학습센터		4	· 도서관과 통합운영을 통해 생활문화 프로그램 제공
주민자치센터		199	· 생활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 03

## 충남 생활문화 정책 관련 도민의견

### 1. 조사 개요

- 의견조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충남도민 및 관련 운영자 311명(도민 271명, 종사자 40명) 대상으로 2017년 9월 11일~18일(8일간)에 걸쳐 ①생활문화 인식, 활동시설, 동기 및 참여방식, ②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③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④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하였음

### 2. 조사 결과

#### 1) 생활문화 인식, 활동시설, 동기 및 참여방식

- 주민이 생각하는 생활문화 활동의 인식은 문화예술 관람(50.7%), 문화강좌 참여(21.6%)로 나타나 자발적 문화활동에 참여 자체를 생활문화 활동으로 인식
- 생활문화 활동의 주된 목적은 ① 여가시간 보내기 및 활용, ②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창작(표현)활동 참여, ③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증진 순으로 나타나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기능 외에 여가문화, 정신건강 등 여가·복지 목적으로 참여함
  - 주로 이용하는 생활문화시설로써는 동·읍지역(도시지역) 주민들은 ①문화원, ②생활문화센터, ③문화회관(공연장), ④평생학습센터 순이었고, 면지역(농촌지역) 주민들은 ①문화원, ②주민자치센터, ③생활문화센터, ④마을회관 순으로 응답
- 생활문화 활동 애로사항으로 ① ‘비용이 많이 든다’가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② ‘생활문화 정보가 부족하다’ 16.1%, ③ ‘생활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하다’ 15.1%, ④ ‘시설·장비

등이 불편하다'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면지역(농촌지역) 주민들은 '교통(접근)이 불편하다'를 가장 불편한 항목으로 응답

## 2) 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 생활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응답자 모두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생활문화시설'의 경우 42.8%(133명)가 '만족'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우선순위에서 동·읍지역 주민들은 영화, 연극, 국악전통예술 순 이었고, 면지역 주민들은 국악전통예술, 연극, 영화 등의 순위를 보임
  - 향후 활동하고자 하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으로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연극, 영화, 음악/무용 순으로 응답하였고, 면지역 주민들은 국악전통예술관람, 요가 참여, 국악전통예술 참여로 나타나, 도시지역의 주민들은 예술 쪽에, 농촌지역 주민들은 전통 관람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서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①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②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고, 면지역 주민들은 ①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②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순으로 응답하여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주민들이 현재 문화공간과 시설에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 개선시급성이 높은 항목으로 도시와 농촌지역 공통적으로 '공간보다는 시설의 개선',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을 응답함

## 3)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에 대해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삶의 즐거움 증진' 효과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일상생활의 활력(활기)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나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음

[표 4]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한 도민(주민)의 정서·심리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구분	동·읍지역 주민	면지역 주민	주민의견 합계
합계	빈도(명)	628	268	896
	비율(%)	100.0	100.0	100.0
효과가 없음	빈도(명)	—	—	—
	비율(%)	—	—	—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빈도(명)	117	37	154
	비율(%)	18.6	13.8	17.2
삶의 즐거움 증진	빈도(명)	148	60	208
	비율(%)	23.6	22.4	23.2
일상생활의 활력(활기) 증가	빈도(명)	127	55	182
	비율(%)	20.2	20.5	20.3
삶에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빈도(명)	122	63	185
	비율(%)	19.4	23.5	20.6
자존감 증대	빈도(명)	90	41	131
	비율(%)	14.3	15.3	14.6
이해·포용력 증대	빈도(명)	24	12	36
	비율(%)	3.8	4.5	4.0

- 문화·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관람, 체험, 교류 증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문화 교류·소통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문화 활동이 건강한 여가시간의 활용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5]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주민		운영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효과가 없음	—	—	—	—
문화참여(협력), 창조자, 기획가로서 문화예술 역량 제고	74	23.8	13	32.5
지역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발전에 기여	127	40.8	22	55.0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관람, 체험, 교류 증대	210	67.5	17	42.5
문화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와의 교류·참여 증가	145	46.5	18	45.0
문화 교류·소통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협력 정신 증대	163	52.4	17	42.5
집단간, 계층간 교류를 통해 갈등해소, 공감 증대: 사회통합에 기여	114	36.7	15	37.5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199	64.0	32	80.0
생활 속에서 창의성 증대	87	28.0	15	37.5
생활문화 활동으로 지역홍보, 브랜딩, 매력 창출에 기여	18	5.8	4	10.0

####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 주민은 앞으로 생활문화 활동 수요가 증가(88.4%)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생활문화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주민(4.07점), 운영자(4.03점) 모두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운영자(4.28점)들이 주민(3.95점)보다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
  - 향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중요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생활문화시설과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
- 주민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시설개선 지원(4.18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자의 경우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4.25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5점 척도)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주민 평균(점)	운영자 평균(점)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	3.98
생활문화시설과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4.18	4.08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4.05	3.90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4.13	4.23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4.11	4.25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4.00	3.98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3.96	3.90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4.14	4.18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3.95	3.98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3.86	3.98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3.97	4.05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3.93	3.7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4.07	4.15

주 : 평가는 5점 척도 :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

# 04 정책 제언

## 1. 정책방향

- 도민의 삶의 질과 생활문화 발전을 위해 충청도에서는 생활문화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생활문화정책 방향으로써 첫째, 여가문화, 복지, 공동체 측면에서 생활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둘째, 현장밀착형 생활문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해야 하고 셋째,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광역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해야 함
- 또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충남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목표, 전략 및 사업 제안



## 2. 정책과제

### 1)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조성 및 매개인력 지원을 추진

- 세부사업으로 ①충남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지속적 조성, ②충남 생활문화 매개인력 지원을 을 제안

#### (1) 충남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지속적 조성

- 충남도민은 현재 생활문화 활동공간과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속적인 생활문화공간의 확충과 시설개선, 장비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관심이 요구됨
- 생활문화 활동 공간 조성은 첫째, 현재 생활문화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과 공간, 생활문화 활동의 적합성 및 편의성에 대해 일차적인 진단을 통해 기존 시설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
  - － 충남의 면지역에서 생활문화 활동은 주로 ①주민자치센터, ②문화원, ③노인복지회관, ④마을회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동·읍지역에서는 ①문화원, ②생활문화센터, ③문예회관/공연장, ④주민자치센터, ⑤평생학습센터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문화의집을 생활문화센터화하여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의집, 문화원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의집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로 활성화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 충남 생활문화 매개인력 지원

- 주민이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촉진자, 매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초기 생활문화 활동의 참여와 지속성에 영향을 받음.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개인력(강사, 기획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매개인력 발굴과 지원은 충남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출향 예술인 또는 생활 예술인으로서 희망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히 충남도 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예술관련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충남지역 내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및 지원사업 추진도 필요
- 또한, 생활문화강사와 함께 생활문화기획자(코디네이터)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생활문화코디네이터는 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발견하여 이를 창조적, 생산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 지원’ 과도 연계시킬 수 있음

## 2)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홍보와 정보 공유를 지원

- 세부사업으로 ①생활문화와 활동에 대한 정책 홍보, ② 충남 생활문화 활동 및 정책사업에 대한 브랜드 구축을 제안

### (1) 생활문화와 활동에 대한 정책 홍보

-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과 정책 중요도에서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생활문화 활동 시작 전,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 계기는 동·읍지역의 경우 ①개인적인 관심, ②친구의 권유·소개, ③가족의 권유·소개가 전체의 79.2%, 면지역의 경우 ①친구의 권유·소개, ②개인적인 관심, ③가족의 권유·소개가 전체의 89.0%를 차지하여, 개인의 관심 또는 소개로 시작되었고, 정책 홍보 등을 통한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임
-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활동 전, 활동 중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동호회 등에 충남도와 시·군, 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소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확산과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함.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매체,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충남 생활문화 활동 및 정책사업에 대한 브랜드 구축

- 주민참여의 정보제공과 홍보를 위해서는 대상이 명확하고 콘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함. 단기적으로는 현재 충남도와 시·군, 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할지라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충남만의 통합정책브랜드를 구축하여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

## 3) 충남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 구축 추진

-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①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 구축, ②다양한 정보 제공, 성과의 공유와 확산 시책이 요구됨

### (1)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 구축

- 그동안 충청남도의 생활문화 정책은 생활교류(문화원), 생활교류(농촌마을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생활기술(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이루어짐. 정책적인 측면에서 생활문화 시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도민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와 충남문화재단 지원 하에 2017년도부터 시작한 동아리 지원 사업임.
-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서 예산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한편, 현재 시점에서 한정적인 자원과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네트워크화하고 협력을 통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의 명칭을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라 하고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하에 문화정책과에서 주도하거나 문화정책과 내에 생활문화정책팀을 두어 문화예술 정책을 전문가(문화예술인)와 생활예술인(일반주민),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7] 충남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

구분	내 용
명칭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
참여기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자치행정과, 농촌마을지원과
	충남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시·군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예회관 담당자

구분	내 용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 정보교환 및 공유</li> <li>·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우수 프로그램, 선진사례 등</li> </ul> </li> <li>·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추진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중복 방지</li> <li>–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협력·지원</li> </ul> </li> </ul>
활동근거	·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조례’에 근거

## (2) 다양한 정보제공, 성과의 공유와 확산

- 충청남도에서 생활문화를 정책적 영역으로서 접근한 것은 2017년부터지만, 금산 생활문화센터 ‘어깨동무’(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운영분야 최우수센터), 3농혁신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생활문화를 농촌마을만들기에 접목한 태안군 만대마을(대통령상, 금상), 당진시 백석올미마을(동상, 장관상) 등의 우수사례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운영의 지속성 확보, 각각의 문화시설에서는 보다 많은 방문객 유치와 사업 성과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고자 하지만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어려운 상태임. 충청남도는 도 내외 우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지원 및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생활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내 자료실, 블로그 등이 있지만, 충청남도 내 기관들의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 추진성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는 생활문화 네트워크 홈페이지와 자료실을 구축하고 블로그, SNS, 통합위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성과의 공유와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정) 기반 구축

-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도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됨. 이는 충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나타낼 뿐 아니라, 공적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이므로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함
  -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는 현재 23개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제정했으며 조례 유형은 ①생활문화(예술) 진흥, ②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③지역문화진흥 조례와 함께 제정하는 등 3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음

## 5)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 및 동아리 육성 지원방안 마련

- 세부사업으로 ①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과 모델사업 확산, ② 생활문화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과 단계별 발전방안 마련을 제안

### (1)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과 모델사업의 확산

-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주민 또는 특정 동호회가 아닌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지원’이 필요하며, 충청남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와 평가, 성과 분석을 통한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 차원에서 특화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창의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충청남도형 지역생활문화 특화 지원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통해 사업결과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활력을 부여하고 자신감 형성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지역특화에 기여했는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사업의 선정과 평가에 기준이 되어야 함

### (2) 생활문화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과 단계별 발전방안 마련

- 생활문화 활동에 자발적 참여, 교류 증가의 결과적 형태가 동아리 활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활성화의 중요한 척도로 동아리 활동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현재 충남도의 생활문화 동아리는 대부분 배움, 친목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문화·사회·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목에서, 숙련, 공헌의 단계로 발전할 때 가능함
- 따라서 현재 동아리 또는 클럽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단계적인 육성 로드맵과 사업을 추진해야 함

박 철 희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041-840-1142, jacob10@cni.re.kr

- 강윤주, 심보선, 2017, 생활예술 : 삶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바꾸는 삶, 살림
- 강윤주, 2015, 생활문화공동체에 대한 뉴 패러다임 동아리 활동에서 마을만들기까지, 웹진 아르고
- 강윤주, 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김유진, 2017, 생활문화예술공동체 활동과 삶의 만족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알런 골드바드 저, 임산 옮김, 2015, 새로운 창의적 공동체 :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울 아카데미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 평가
- 윤주, 2014, 국외 문화여가정책 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임승관, 2015, 건강한 생활문화예술의 힘, 시민동아리 활동가, (전북)문화저널
- 장민희, 2014, 생활문화예술동호인 활동 만족도 분석 : 전라북도 익산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세길, 2017, 전북 생활문화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충남 생활문화 진흥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
- 정광렬, 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해홍, 2017, 전라북도의 생활문화예술 방향과 지원체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광호, 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